

“스님들 보수적이다” 이젠 옛말

류승무교수 ‘한국승려의 정치사회의식 분석’서 밝혀

불교는 모든 존재의 평등성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보수적인 종교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와관련 최근 우리나라 스님들의 정치·사회의식이 진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승가대학 류승무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난 5일 중앙승가대학 교수연구논문 발표회에서 ‘한국 승려의 정치사회의식에 관한 일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승려의 정치·사회의식은 불교의 종교적 이



◇ 류승무교수

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면서 “최근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승려의 정치사회의식이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교수는 “한국 승려들은 6공화국 당시 정부와는 보수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통일문제나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일반인과 비슷



◇ 스님들의 정치 사회의식이 점차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진은 94년 조계종 개혁신을 위한 범불교대회 장면.

한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거나 오히려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류교수는 또 한국 승려들은 포교활동 이외에도 사회복지활동의 대상이 돼야 함을 당위로 여기거나 최소한 의식차원에서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사회의식은 불

교공동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이 인용한 ‘종단개혁에 관한 불교대중 의식조사(현대리서치연구소, 1994)’에 따르면 시급한 사회활동에 대한 견해로 민족문화보급(42.3%), ‘사회복지문제 해결’(28.8%), 민족통일(12.8%), 사회민주화

(5.8%), ‘빈부격차 해소’(4.8%) 등이 지적됐다.

또 ‘종단개혁에 관한 설문조사(사회문제연구소, 1995)’에 따르면 포교활동(53.5%), 사회복지활동(28.1%), 인권운동(5.4%), 시민운동(4.8%), 환경(4.0%), 통일(2.8%), 사회민주화(1.4%)운동 등이 시급한 사회활동으로 꼽혔다.

류교수는 “지난 1994년의 조계종사태는 불교와 정부간의 기존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우리나라 승려들의 진보적 정치·사회의식의 표현이었다”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한국사회의 사법비리현상을 극복하는데 스님들이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문사 내의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민초의 애환 달래온 천년신앙’ 정운섭·이병삼씨 해남지역 미륵신앙 조명

전남 해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미륵과 입석(立石)을 통해 해남지역의 미륵신앙을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월 23일 전국문화인연합회(회장 이수홍)가 주최한 전국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장을 수장한 정운섭·이병삼씨(해남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의 ‘해남지역의 미륵신앙 연구’란 이 논문은 미륵신앙의 성립과 변천, 해남지역 미륵불의 유형별 실재와 미륵관련 전설 등을 다루었다.

논문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래 전래된 미륵신앙은 사찰을 중심으로 신봉되어 오다가 고려시대가 되면서 특수사찰을 중심으로 왕실 및 민중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했던 고려후기에는 민초에 미륵신앙이 널리 성행하고, 점차 민간

신앙화 했다. 해남지역에 남아있는 미륵석불은 대략 10여기 정도 파악됐고, 미륵과 관련된 전설도 10여가지 조사되었다.

사찰미륵은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남미륵암 그리고 신안리 석불입상이 있다. 마을미륵은 해남리 고도리 마애불, 계곡면 성진리 마애불, 해남읍 남천리 미륵, 산이면 업자리 미륵바위, 황산면 연당리 미륵불 등이 있다. 또 미륵신앙이 들어있는 매항비(埋香碑)와 아들낭가를 기원하던 기차(祈子)신앙미륵, 자연적으로 된 입석미륵도 있다.

이밖에 미륵에 관련된 전설로는 사찰연기전설과 기차신앙전설을 비롯, 금기사된 것을 어겨 벌을 받게 된다는 장자문 전설, 입석전설, 기타 매항비 조성 전설이나 마을미륵 전설 등이 있다.

전통기와, 불교정신 담은 예술품

김현산교수 삼국시대별 조형성 세밀히 다뤄 ‘고구려-강직, 백제-유연, 신라-세련’ 주장

우리나라의 전통기와는 불교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초기에는 기능성이 강했으나 후대에는 종교성과 미(美)가 더 강조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남대 김현산교수(건축공학)는 최근 영남문화동호회가 펴내는 <중앙지> 제5호에 게재한 논문 ‘우리나라 전통기와의 고구려와 백제’에서 우리나라 전통기와의 양상을 한눈에 지니고 있는 서양기와와는 달리 암·수기

와가 구분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삼국이 다같이 중국 남북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구려와(瓦)’는 직선적이면서 강직한 반면 ‘백제와’는 회화적이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느낌, ‘신라와’는 화려하고 세련된 감각을 지닌다고 대별했다.

이중 백제는 중국의 화남지방과 고구려의 영향을 나름대로 수용, 삼국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와를 만들어냈

으며 일본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스카문화의 뿌리역할을 했고, 신라 와당의 무늬장식이나 조와술(造瓦術)은 고구려 백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독자성을 지니면서 발전, 형태와 문양, 사용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또 건물을 짓기전에 쓰일 곳을 미리 고려하여 제작, 목조와가(木造瓦家)의 새로운 건축술을 낳은 통일신라의 와류(瓦類)는 미를 뛰어넘어 국가의 권인과 번영을 소망하는 신라인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이제설(二編說)에 대하여(최경아) 등 4편이다. (02)260-3133

‘종교와 인격’ 주제 학술대회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동국관에서 ‘종교와 인격교육’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용표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장의 ‘불교와 인격교육’을 비롯,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독교 증산교 무교(巫敎) 등 각종종교의 인격교육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02)275-5607

◇ 기사남처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다.

기독교 친척을 불교로 이끌고 싶어

가까운 친척중에 집안 전직구가 교회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분들을 불교쪽으로 이끌고 싶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주영·부산 금정구 금사동)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천주교 성당을 다니든 내가 이 세상에 출현했으니까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교를 믿든 주체는 내게 있다! 나 이외의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점을 일러주세요. ‘당신이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主)하나님의 그 주는 나의 근본, 마음의 근본이다. 하나님이란 어디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이나 그야말로 하나의 근본에서 나오는 당체 바로 그것을 일컬을 것이다’ 라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어주세요. 또 ‘불교라고 하면 기독교와 상대되는 불교, 천주교와 다른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불은 생명의 이치요 교는 마음과 마음이 얽혀서 세상 돌아가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내 종교 네 종교로 패가

문에 제게 몹쓸 일을 하곤 했는데 제가 마음 공부라 좀 되거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보고 친구들은 사람이 넉넉해 보인다. 좋은 일이 있느냐고 합니다.

이 모두 가르침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한 주부가·경남 김해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있지 않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믿어야지요.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 아닌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고 둘 아니게 행하며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 돌아가 바로 잡히질 않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여름달 전부터 목이 아프고 뒤로 돌아가면 서 좀처럼 바로 잡히질 않습니다. 정밀검사 등 다 해보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스님,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김수옥·서울 구로구 독산동>

날더러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늘 말씀드려야 나오느라 나온 자리에 되달기는 도리를 실천해보세요. 모르게 업식의 늪을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미유신원 대흥사님께 문고 답을 돌려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르는 것부터가 빛나간 것이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심중팔구는 알아들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찾는 주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찾는 어떤 대상이 아닌데 그 점을 잘 모르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종교가 무엇이냐는 구분은 사소한 일입니다. 무엇을 믿든 다 한마음이요 하나로 돌아 갑니다. 그분들이 잘 모른다해도 불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지구 상에 온갖 인종·국가들이 있어서 제각기 다른 모습의 살림을 하고 있지만 모두들 지구를 타고서 쉬지 않으며 돌아가고 있지요? 기독교 따르 돌고 천주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따로 도는게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있어 종교가 벌어졌는데 벌어진 것 거둬들이면 나 하나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나로 귀결된다하면 내 마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밖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든 주님을 찾든 그것은 자유인데 제발 바깥 대상으로 규정짓지 말고 내 마음 안으로 찾으라고 일러주기 바랍니다.

노름꾼 남편을 주인공에 맡겼어요

제 남편이 노름을 좋아하는데 얼마전에는 절보고 돈을 인내놓는다며 저를 여러시간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대 주인공만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 마음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전에도 몇차례나 노름 때

이고 그런 증세도 다 업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온 자리에 되놓아야 하지요. 인연이 카세트테이프를 예로들어 말씀드렸는데 녹음된 것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것을 녹음하는 테이프를 만든들 일단 되돌려야 하겠지요. 목이 돌아간 것도 거기서 나온 것, 되돌리지 않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며 되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학생과 비슷한 증세의 한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절을 하는데 빈 방석을 가리키며 자기 부처님이 앉아계시니 삼배를 올려라 하니까 옆에서 보기에다 그토록 지극정성이 수가 없었습니다. 빈 방석에다 대고 극진히 삼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대로 부처님 마음과 한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분, 버스타고 돌아가는 길에 목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과도가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사람들마다 실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아우성친다고 비바람이 멎을까요? 그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정을 믿어야지요. ‘선장님 당신만이 이 비바람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할 때에 선장도 힘이 더 솟구쳐서 배를 잘 끌고 가게 되겠지요. 마음의 묘용이란 그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몸통이 끌고가는 선장만이 고칠 수 있어!’ 그렇게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몸통이 세로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제각기 놀지않고 하나로 뭉치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세포의 생명들이 보살로 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자기”를 아십니까? 무엇을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7치:23.1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5치:17.5cm)

일만불 조성



(1자:33cm)

“아차,,” 가격이요

아주 저렴하고 부담 없습니다.

저렴하다고 가짜가 아닌

진짜금(24k) 입니다.

대한자기

전화:(02) 508-4164~6

팩스:(02) 508-4166

본사:강남구 역삼동 642-19

공장:경기도 이천

“스님, 생전에 이런 부처님 처음 보실 것입니다.

“불자, 님들 탄복하실 것입니다.

“황금, 불상 공급하시죠. 전화 주시면 직접 방문하겠습니다.